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3. 3. 3.(금) 10:30
- 장 소 : 시의회 간담회장(2층)
- 참석자 : 심사위원회 위원 (7명) 및 관계자
 - 위 원 : 이종선(산림보호협회 상임의장), 성영태(계명대 교수), 박순호(대구교대 교수)
이창재(아이뉴스24 기자), 박경찬(변호사), 전경원(시의원), 김태우(시의원)
 - 배 석 : 의정정책관, 총무팀장, 기행.문복,경환.건교.교육위 관계자 등

[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총무팀장 이상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위원회에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5건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심사안건은 같은 조례 제2조6호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제9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의 각 호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먼저 상임위별로 출장계획을 보고받은 뒤에 일괄 질의응답 시간 갖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일동] 예

[총무팀장]

심사안 의결은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시 의결되며, 시의원인 위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출장계획의 심사의결에는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하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산림보호협회 이종선 상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계명대학교 성영태 교수님이십니다.
대구교육대학교 박순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찬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전경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경북대학교 정홍상 교수님은 강의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하신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위원회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회 의원 국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9명 가운데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원 국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국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3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국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국무국외출장은 항상 시민들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의정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공
감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문제점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 안건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분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분 팀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분 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앞서서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출장목적에 맞는 출장지와 일정, 방문기관 선정을
위해 금년 1월 초부터 지속적인 시장 조사와 10여 차례 이상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국외출장 취지에 맞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출장목적은 시민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발굴이며 출장기간은 3월27일
월요일부터 4월3일 월요일까지 6박 8일간입니다. 출장지는 헝가리와 오스트
리아이며, 출장자는 총 8명으로 계획행정위원회 위원 4명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1명, 전문위원실 직원 3명입니다.

2페이지 출장지 선정 배경입니다.

대구시는 2003년 지하철 참사와 95년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의 아픔을 간직
하고 있는 도시이며 작년에 일어난 매천시장 화재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로역에 위치한 기억의 공간 팔공산 시민안전 테마파
크 등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도 사회적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추모 공간으로서의 역사를 가진 부다페스트의 기억의 공간을 방문하여
콘텐츠 구성 및 시설 운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7월 1일 군위군 편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면적을 관할하게 될 예정으로 산림 면적이 두 배로 넓어질 만큼 산불 등 대형 재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재난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시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 전문 인력, 선진 장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헝가리 재난관리본부와 오스트리아 소방연합, 자원봉사 소방서, 소방박물관 및 소방 장비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관련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응급 구조, 구급과 연계된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응급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예정이며, 오스트리아는 동유럽과 만나는 중부 유럽의 관문으로서 국제회의와 분쟁조정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UN 마약 범죄사무소와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등 국제기구를 방문하여 교육훈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일정별 방문 기관과 업무 수행 개요입니다.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개인별 담당업무 수행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먼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하우스 오브 테러뮤지엄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공산주의 시대의 희생자 추모 공간으로 기관 운영 현황 및 콘텐츠 구성 등 자료를 수집하여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공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추모공간 운영에 관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다페스트 시 재난관리본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본부 조직 구성, 재정 현황, 지방 재정의 역할과 각종 재난 시 종합구조시스템 및 기관협조

체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시 재난안전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를 방문하여 국제기관으로서의 주요 현황과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현재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심도깊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UN 마약범죄사무소를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통해 마약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 등을 수집하여 마약 퇴치 방안 등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소방 조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소방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방 소방 연합을 방문하여 오스트리아 소방 체계에 대한 벤치마킹과 대구시 소방 조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선진 소방행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계적인 소방장비 제작 회사인 로젠바우어사 시설 견학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최신 소방 장비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대구 소방 장비 보급과의 연관성 등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12 페이지입니다.

99%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소방서를 방문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운영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13 페이지입니다.

향후 우리에게도 필요한 소방박물관을 방문하여 소방의 역사를 배우고 전시 공간 콘텐츠에 대한 선진행정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4 페이지입니다.

빈 제1의 종합병원이자 공공 의료 성격이 강한 빈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응급 의료체계 및 기능 강화 지원 예산 등에 대한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안전 관련 분야 정책 발굴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해외연수 본질에 맞는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송정훈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송정훈 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송정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일정은 3월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으로 일본 도쿄 및 요코하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출장 대상은 총 10명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외 위원 5명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1명

전문위원실 직원 3명입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출장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를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 안전한 복지 도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 복지, 청년·여성 분야의 입법 및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3위의 경제 강국이며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 문화예술 관광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을 비교 연수국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광 및 복지 분야의 선진정책과 사례를 비교하여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2 페이지 주요 방문지 및 출장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최대 뮤지컬, 연극단체인 극단 사계가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뮤지컬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사계 예술센터와 극단 사계가 운영하는 60개의 전용 극장 중 도쿄에 위치한 덴츠 사계극장 우미를 차례로 방문하여 뮤지컬 인재 양성 방안 및 극장 운영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대구의 뮤지컬 산업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술로 뚫폰기 지역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국립신미술관 산토리 미술관 모리미술관 세 곳이 결성한 네트워크로 세계적인 미술관 밀집 지역인 아트 트라이앵글을 방문하여 전시 동향, 공간 활용계획 운영 방안 등을 살펴보고 사례를 참고하여 대구미술관과 곧 개관 예정인 간송미술관간 시너지 효과 창출 등 활용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과 연계한 미술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 소재 공설 노인 복지 시설인 마이홈 신카와를 견학하여 시설 인프라, 노인복지 서비스 등 정책 사례를 수집하여 대구형 노인 복지

정책 발굴에 활용하고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여 일본의 관광 콘텐츠 성공 사례를 수집하고 대구 관광 콘텐츠 홍보 및 일본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역사적인 장소가 도시재생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 중심지 및 관광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인 도쿄의 오다이바와 요코하마의 아카렌가 창고를 시찰하여 지역 문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문화예술 관광복지 분야의 국외 선진현장을 시찰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계획하였으며 출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나현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나현 팀장]

경제환경위원회 김나현 팀장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번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4월 4일부터 12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금번 출장 대상은 총 9명으로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명, 경제환경위원회 직원 3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출장목적과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의 미래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수자원 관리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환경 분야의 입
법,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와 일찍이 환경 보존과 자원 재활용의 엄격한 기술로 체계적인
청정국가로 손꼽히는 스위스를 방문하여 경제환경 분야와의 선진정책과 사
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활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방문지 및 출장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인트 쿠엔틴 앤 이블린 시청을 방문하여 경제 환경 분야와 우수 사
례를 공유하고 특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성공
사례를 수집 발굴하여 정책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블로뉴 삼림공원을 시찰하여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사례 수집과 제2
수목원 건립, 금년 10월에 예정된 대구 정월박람회와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접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파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마스티유 시장을 견학하여 전통시장 활성
화와 특성화 시설 육성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또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F를 방문하여 청년 친화적인 독특한 공간 배치와 우수 지원
사례를 수집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파리 하수처리센터 시찰를 통해 파리의 선진 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하고 관련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4월 8일 토요일 스위스에서는 국제도시로서 외교의 중심지이자 많은
국제기구와 기관본부가 밀집한 제네바를 방문하여 UN 제네버, 국제적십자
박물관을 살펴보고 인권 보호와 평화 의식을 되새기고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박물관 견학을 통해 교통수단의 발달사 뿐만 아니라 VR, AR, MR의 최신기술 체험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우프쉐티 호수공원을 방문해 도심 속 친수 환경 조성과 수변 공간 개발 사례를 수집하여 신천 금호강 수변 생태 공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수출, 투자 유치, 글로벌 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취리히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지원과 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취리히 정수장을 방문하여 세계적인 물관리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위스 선진 정수처리 시설을 시찰하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경제환경 분야 국외 선진현장을 시찰하여 연구 분석을 통해 우수 정책을 발견하고 의정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심사위원님들의 풍부한 고견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상봉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상봉 팀장]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일정은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7박 9일에 걸쳐 프랑스(파리)와 이탈리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금번 출장대상은 총 9명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6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3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출장동기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의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및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 교통 분야의 입법 및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정책사례가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도시계획·건설·교통 분야의 선진 정책과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연구·분석을 통해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방문지 및 출장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파리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민관합작회사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파리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주요 도시개발 사례를 청취하고,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대구시 도시개발사업과 비교·분석하여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불용상태의 고가철도 구역에 조성된 파리 도시재생공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도시재생 사례 자료수집을 통해

대구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시의 스마트한 변혁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밀라노 스마트시티 조성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로마의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 가장 활동적인 비즈니스 지역이 되고 있는 계획도시 에후르 지역 청사를 방문하여 도시 조성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버스와 트램 등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고, 모빌리티 공유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있어 선진적인 친환경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피렌체 시 교통부를 방문하여 관련 교통정책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친환경도시 오르비에토를 방문하여 전기셔틀버스, 궤도열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시설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로마 시의회를 방문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교통 분야 우수 시책 현황과 정책 입안 사례를 청취하고, 자료 수집과 정보 공유를 통해 양 도시의 의정 분야 협력 과제 발굴과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방문도시 관계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현재 노선과 정거장 위치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엑스코선 건설, 대구시 신청사의 합리적인 건설 방안,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방안을 이번 기회를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관련 분야에 대한 대구시 정책 발굴과,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일정으로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종식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윤종식 팀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지원팀장 윤종식입니다.

2023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일정은 23년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7박 9일에 걸쳐 네덜란드 헤이그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금번 출장대상은 총 13명으로 이동욱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6명, 전문위원실 직원 3명과 교육청 직원 4명입니다.

먼저 62페이지에서 67페이지 출장동기와 출장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19년 전국 최초로 한국어 IB프로그램을 공교육에 도입했으며 23년 현재 92개교에서 IB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도 IB프로그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IB 프로그램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2022년 교육위원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에 있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대구 IB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였다면 본 출장에서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IB프로그램의 본고장인 유럽지역 관할센터이자 IB 실무본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B 글로벌센터 방문을 통해 IB프로그램 내실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IB프로그램 과정 중 직업교육 과정인 CP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헤이그 국제학교 방문을 통해 대구 IB·CP 과정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이스터의 본고장이자 성공적인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직업 전문 학교 및 취업 연계 기관 방문을 통해 대구 직업 교육 시스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독일의 패밀리 센터를 방문하여 가족 지원 돌봄서비스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여 대구형 늘봄학교에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방문지 및 출장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우선 네덜란드 헤이그 IB글로벌센터를 방문하여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IB 프로그램 특·장점 논의를 통해 유럽 지역의 선진적인 IB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대구 IB 프로그램 개념 내실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입니다. IB 프로그램 중 직업교육 과정인 CP과정 운영학교인 헤이그 국제학교를 방문하여 대구 IB프로그램 CP과정 도입에 있어 사례를 수집하고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입니다.

대구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베를린 OSG 직업전문학교 및 전기 회사인 바텐팔 전력회사를 방문하여 도제식 직업교육의 선진 사례를 탐색하고 교육과 실습 이원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대구교육 직업교육 시스템 내실화 방안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독일 베를린 패밀리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방과후 학교 돌봄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수집하여 대구형 늘봄학교에 적용 방안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을 견학하여 의사당 방문자 서비스 및 운영 프로그램, 청사의 외부 개방 활용 방안 등 사례를 수집하여 대구 의회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계획은 의회 차원에서 헤이그 IB 글로벌 센터 및 국제화 학교, 독일 직업 전문학교 및 연계기관, 독일 패밀리 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IB 프로그램 내실화와 IB CP과정 도입방안 모색, 직업교육, 돌봄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정책 입안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므로 모쪼록 심사위원님들의 풍부한 고견으로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경원 위원님은 교육위원회, 김태우 위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한 건에 대하여는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렇게 준비해주신 각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먼저 한번 받아봤는데요.

먼저 심사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전체 이렇게 같은 포맷을 사용하신 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앞부분에 보면 출장 개요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동일한데 보통 이제 뭐 세부 계획이 나온 다음에 출장 일정을 하고 개인

업무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세부 사항 이후에 또 구체적인 사항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출장 일정하고 개인별 업무를 설명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포맷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다 좀 다르세요. 포맷이 그래서 보기가 좀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또 지금 제일 이제 마지막에 사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관계 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디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관계자가 나와서 면담을 하겠다. 하는 거를 다 기재해 두셨는데 다른 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계자를 어떻게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계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이제 어디 뭐 공원을 방문한다, 이래 돼 있으면 단순히 이제 견학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시간 동안 뭐 공원을 둘러본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공원의 조성 관계자와 함께 공원의 설명을 듣는다는 뜻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없어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 그냥 그날은 공원에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좀 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 질문은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뭐 공무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해외에 나가시고 견학이라든지 선진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고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 찬성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5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방문해가지고 수행해야 될 업무라든지, 또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오고 가고 하는 일정 빼고 짧은 기간에 이 기관들을 다 방문해 가지고 여기서 뭐 아주 좀 핵심적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너무 일정이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짧은 일정에 방문 기간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행정위원회가 보니까 우리 대구하고 상당히 많이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는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재난 특히 대형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이게 인재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재 뭐 대형 화재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주제나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파서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문을 하면 훨씬 더 조금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외 방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그 반부패 아카데미라든지, UN 마약 범죄 사무소도 좋습니다마는 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의 이거는 뭐 법무부나 대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시의회에서 이걸 방문해 가지고.. 물론 마약 범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급증하고 있고 또 뭐 외국의 노동자라든지 또 어떤 신종 마약들이 들어와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단순히 방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을 거 같아서..

나머지 뒤에 위원회도 거의 대동소이한 거 같아요. 제가 기획위원회만 꼭 짚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기획위원회에서 방문하는 그런 기관들이 대구 시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거 작성을 하시게 되면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조금 더 이제 한 개의 어떤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녀오셔가지고 하나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우리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이나 개선점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훨씬 심사하는 저희들도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만 이거를 하고 갔는데 신문사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이거를 심의해 가지고 제가 다 통과시켜 갔는데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도 안 되는지 요구를 했잖아요. 제가 이걸 통과했는데 저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이거를 통과시켜 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기는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마는 조금 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간이 짧은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방문하기보다는 하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보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든 또 언론사나 기자들 입장에서든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제가 이제 5개 분야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는 저는 이제 뭐 제 역할은 전문적인 저는 이제 지리 쪽 전공이다 보니까 출장 목적과 대상 국가별 장소, 그다음 출장 목적의 적절성 여부, 이동 동선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경비는 관련 부서나 전문가가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왔을 때 이제 싱가포르, 베트남, 그때보다 월등히 합목적적으로 그때 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가 좀 편했어요.

위원회별로 제가 살펴보니까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출장국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로 되어 있는데, 출장지 선정 배경에 이게 3페이지에 보면 첫 줄 “재난 관리 중앙정부에만 의존 안 해서” 쪽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테러 박물관과 재난 관리본부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쪽에 있는 내용이 2쪽에 뭐 “이 아픔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테러 박물관을 견학하고” 이거 3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방문지 별로 이렇게 어디 가는데 좀 요약정리를 하면 자료는 전부 다 있는데 이거를 좀 순서를 바꿔서 요약정리를 하면 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마이너한 건데 제가 한글에서 타이핑에서 이제 오타 이런 거 찾아봤더니, “자원봉사소방서” 아까 이거 발표하신 분도 자원봉사 띄우고 소방서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한글에서 2개 다 맞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자원 봉사 띄우고 소방서라고 하는게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아주 마이너한 거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쪽에 이동 동선을 보니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들어가서 오트리아 빈, 리츠, 찰츠부르크, 빈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동선을 보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을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동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찰츠부르크, 리츠, 빈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동선을 부다페스트에 들어갔다 안쪽으로 갔다가 다시 해 가지고 그냥 이렇 하면 왔다 갔다 안 하고 하면 안 낫겠나 싶고, 7일째 우리가 빈에서 찰츠부르크, 해서 다시 빈에 갔다가 또 이제 돌아서 나오게 되는데 동선 처리를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6일차에 보면, 찰츠부르크에서 각 기관 방문 결과 정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일차의 업무가 아직 있는데, 빈 소방관 박물관, 종합병원

박물관이 있는데, 방문 결과 정리하기 전에 현장 방문을 다 끝내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똥맞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동선을 좀 덜 꼬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결과 정리를 다 방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예술 관광 산업 발전을 보면 17쪽에 보면 출장지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1번 바로 도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방문하는 곳이 뭘니까? 방문 지역이 도쿄와 요코하마예요. 그래서 2군데 요코하마를 하나 더 첨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22쪽에 사계예술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26쪽 도시 재생을 통한 관광명소화 아카렌가 창고를 포함하여 요코하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두 개를 넣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건2에서 보면 문화예술 관광 산업 발전 및 대구형 노인 복지 정책 발굴 모색해 가지고 크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목적이 두 개예요. 관광 산업과 노인 복지 두 개가 있는데, 비중이 좀 맞지 않아요. 일정에 보면 대부분 다 어디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그러면 관광 쪽에 있고 노인복지는 이제 시설 한 군데만 좀 방문을 하는 걸로 그쳐요. 앞에 목적 두 개가 나와 있으면은 좀 비중을 좀 비슷하게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27쪽에 3월 29일 수요일날 도쿄에서 마이 홈 신가와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일정이 일본 관광청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를 방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거 대신에 조금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 도쿄에서 노인복지시설 관련기관 방문 혹은 노인 시설에 대한 이제 시간적 할애가 좀 더 있으면은 좀 비중이 좀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주 마이너한 건데 18쪽에 보면 이쪽 명목국내총생산 세계3위 경제규모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 달려 표시를 뒤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앞에 그러니까 달러 14조 해서 앞에 표시를 하는게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아주 마이너한 거지만이 제가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건3에서 경제 환경 분야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정책 발굴 과제를 보면 앞에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듯이 너무 많은 곳을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35쪽에 보면 이제 어디 간다는 게 나와 있는데, 스위스가 이제 나라 면적이 크지 않은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방문 기간이나 장소를 줄이고 분과와 관계가 깊은 시설이나 장소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5일차에 보면 35쪽에 스위스 제네바의 UN본부, 국제 적십자 박물관을 이제 방문한다 그랬는데 UN 설립 목적 이때 여기 한다는 것이 뭐냐 UN 설립 목적 및 주요 활동 사례 조사 및 뭐 이런 걸 하는데 꼭 이걸 제네바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되는 이유는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그걸 하지 말고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일차에 이제 스위스 인터라켄을 방문을 한다 그러는데 이때 여기에서 현지 문화 탐방 및 출장 내용 중간 점검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인제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지 뭐 중간 점검 뭐 필요하면 중간 점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면 일정을 다르게 조율을 해야 되니까. 이유를 좀 이렇게 명시적으로 좀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제 8일차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보면 이제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을 방문하는데 우리나라 소속기관 방문보다는 아마 통역하는 사람도 있으면 취리히에 이제 경제 개발청 또는 취리히 상공회의소 이런 걸 방문을 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출장 가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 지역의 상공 시설을 가가지고 어떠한 계획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안건4는 이제 뭐 별로 제가 말씀 드릴게 별로 없는 거 없고요. 그 다음 안건5도 제가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 건데 보면 안건5에서 네덜란드 독일 IB 학교방문과 맞춤형 주문형 학교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대구 교육에서 얻을 점은 좀 많을 거 같아요.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

언론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알차고...

또 요즘은 국외 연수 문제는 긍정과 부정이 오가는데 기자들 기사는 늘 부정적이죠 그래서 심사위원들 말씀 하나하나 다 기사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 기자실에서 일부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경북도의회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동반을 합니다. 자부담을 해서. 그래서 거기 어떤 의원들이 어떤 의정 활동을 벌이는가 감시감독은 못 하더라도 같은 일정을 공유하면서 그 뒤에 기사가 나오는 좀 이런 종류가 도의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의회는 계속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단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거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자들도 이제 각 매체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부담을 들어서라도 가려고 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이라도 어떤 이런 기회로 다시 온다면 일단 기자들하고 의견을 공유해서 각 상임위별로 한두 명

기자들을 대동해서 가는 그래야지 비판적인 기사도 조금 안 나올거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비판적인 기사 나옵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뭐 이걸 한 대 맞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알차게 하는가? 시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기자들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지난해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한 군데씩 일정이 돼 있는 상임위도 있는데, 그만큼 알차게 그 시간 내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 암튼 기자들, 언론 입장은 무조건 내일이든 모레든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일단은 프로그램 알차다, 각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잘 참조를 주시고 건설위원회에 저는 이렇게 보면은 대구시는 지금 노후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파리 쪽에는 도시 철도 쪽이나 환경 이런 게 좀 우리 대구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파리같은 경우는 수 십년에 걸쳐서 전면적인 도시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막 오래됐는 공장 이런 걸 지금 재생할라고 지금 시장님하고는 하잖아요. 거기에 좀 발맞춰가지고 그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오스트리아하고 예를 들어서, 여행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행을 가는데 거리하고 상관없이 여행자 보험이 또 2만원, 3만원 또 이렇게 또 차이도 나대요. 이런 것도 가격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위원]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 빈에 소방박물관을 간다 4월 2일에 간다고 되어있는데 소방박물관 견학이라고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볼 때 어떨지.

다음 쪽을 보면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자원봉사소방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관계자 면담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만일 박물관을 간다 그러면 뭐 박물관에 관계자가 나오든지 면담자가 있든지 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되야 하는데 견학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도쿄하고 가시는 여기도 보시면 23쪽에 모리미술관, 국립신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사례 청취 되어 있는데 앞에 22쪽에 보시면 사계예술센터 방문하면 면담자가 있고 이래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모리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영사례 청취하러 방문한다고만 되어 있고, 뭐 뒤에 이제 마이홈 신카와에 대해서도 그냥 우수사례 수집하러 방문한다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방문만 하는 건지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기 방문해서 뭘 청취하고 뭘 알고 싶어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없어요. 단지 이제 뭐 마이홈 같은 경우는 마이홈 신카와가 어떻다라는 거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인터넷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렇고..

또 파리에 가시는 것도 37쪽입니다. 이제 블로뉴 삼림공원에 간다라고 이제 여기 2시쯤에 가시거든요. 가시는데 뭘 보고 뭘 하겠다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뭐 관계자가 나온대든지 공원 조성을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은 없고 여기 가서 이제 휴식 공간 제공 및 대기질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공원을 한 바퀴 도시는 건지 안그러면 관계자를 만나시는 건지.

그 다음 쪽도 다 마찬가지로요. 뭐 마스티유 전통시장을 견학을 하셔서 현지 소상공인, 이용객 실태 조사를 하신다는데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또 이제 제네바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고, 또 뭐 공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냥 시민들 이용 및 실태 조사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왜냐면, 공원이라는 게 갈 때마다 다르잖아요.

시간 따라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르고 그 뭐 계절 따라 다른데 어떻게 하실지 좀 이해가..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뒤에도 뭐 계속 이제 공원이나 또 여기 보면 밀라노 같은 경우 51쪽입니다. 밀라노 스마트시티 구축을 현장 방문을 하겠다는데 현장 견학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 현장 견학을 가면은 밀라노 스마트 시티 구축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고 관계자 면담으로 돼 있는데, 관계자 면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내용이 없어서 좀 솔직하게 이게 이 자료만 보고 아까 이게 그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은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자료를 만드신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견학을 한다 여기 또 뭐 오루비에또 친환경 교통수단 견학돼 있는데, 버스나 교통수단인 트램을 한번 타시겠다는 건지 타고 말겠다는 건지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 있어야지 이렇게 국외 출장을 갔다 오셔도 제3자가 봤을 때 오해를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저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군위예요. 그래서 7월 1일에 군위가 이제 대구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는 혹시나 파리에 가면 파리가 이제 또 프랑스의 굉장히 큰 대도시고 첫 번째로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러면 거기에 광역

철도 시스템이 우리가 군위가 또 들어올 거니까는 군위하고 대구하고 이제 교통이 어쨌든 통합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다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군위 주민으로서도 좀 바람이 있고요.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꼼꼼히 잘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심사 기준을 참고하셔서 심사 의견서 가.부 란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표결 및 집계>

[위원장]

그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건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주신 고견을 출장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가 전국적으로 공무국외출장 모범 사례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